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행복한 금요 편지

‘사랑’하는 ‘자기’에게!

이용환[1)]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오랜만에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끼리 하던 ‘자기’라는 호칭과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제로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호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결혼과 동시에 부른 것이 아닌지도 희미합니다. 아마 당신이 먼저 이렇게 불렀고 나에게도 이렇게 불러주기를 부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호칭이 낯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합니다.

한국인 부부의 호칭은 다양한데 우리 부부는 서로가 ‘자기야’라는 호칭을 쓰고 있으니 정말 별난 부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부부는 친구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무뚝뚝한 남편을 둔 여인네들로부터는 부러움을 받기도 했지요. 심지어 가슴 떨림을 불러오는 호칭이었다는 얘기도 들었지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보다 말수가 적은 편이지요. 그렇다고 남편의 아내 사랑이 덜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남편들이 말은 적지만 눈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네들은 남편으로부터 말로 몸으로의 표현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당신도 그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지요. 나는 당신이 ‘사랑’이라는 말을 해보라고 보채면 짜증을 낸 적도 있는 것 같네요. 당신 가로 왈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그 깊은 곳에 있는

1) 이용환 사무총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전무를 거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을 직임하고 있습니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표현해주길 원했지요. 그 시절에 나는 당신이 아무리 보채도 '사랑'이란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아양을 떨면서 따라 해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한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야!

권유 아닌 권유를 하는 당신의 노하우가 제법이었소. 당신 표정에 '화'나 '심술'이 보일 때마다 '사랑'이란 말이 묘약처럼 약효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표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랑의 묘약' 때문에 얘들에게도 정겨운 아빠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우리 부부에게 '고무줄'이라는 별칭을 붙여 주면서 "너희 부부를 보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말이 오늘따라 새삼스럽네요. 옆에 있으면 있는 대로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대로 고무줄처럼 다시 당겨오듯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옆에 있듯 하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항상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고민하거나 어려울 때 당신은 항상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지요.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나에게 미소와 대화로 친밀함을 표현해주듯이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렵니다. 앞으로도 내가 당신을, 당신이 나를 서로 격려하고 등을 두드려주며 살아갑시다. 내일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웃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활기차게 살아갑시다.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아직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말이 실감나는 차가운 날씨이지만 다음 주말에는 봄맞이 여행을 떠납시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기'가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발행일: 2016년 3월 18일 (2016-03)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행복포럼 / www.hansun.org